

약점공략 문법40제

1. <보기>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점원 : 손님, 어떤 옷을 ㉠ 찾으십니까?
 손님 : 셔츠를 좀 보려고요. ㉡ 저희 아버지께서 입으실 거거든요.
 점원 : 이 셔츠는 어떠세요? 선물로 ㉢ 드리시면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손님 : 저희 아버지는 ㉣ 어깨가 넓으신데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점원 : 그러시면 ㉤ 어르신을 모시고 한번 들려 주세요.

- ① ㉠ : '-니까'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② ㉡ :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 : '-시-'를 사용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을, '드리다'를 사용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 ④ ㉣ :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 신체의 일부가 주어로 올 때도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 ⑤ ㉤ : 높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2.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보다', '듣다', '느끼다', '맛보다', '말다'와 같은 단어들은 감각 기관을 통해 인식한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추상적인 인식이나 판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볼까요?

- ① **보다** { 다회를 보며 인상을 썼다.
이 도시를 유통의 중심지로 본다.
- ② **듣다** {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종종 농담을 진담으로 듣는다.
- ③ **느끼다** { 포근한 이불의 감촉을 느꼈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비명을 질렀다.
- ④ **맛보다** { 찌개의 간이 어떤지 맛보았다.
인간은 때때로 상실감을 맛본다.
- ⑤ **말다** { 라일락 향기를 말으니 봄이 온 것을 알겠다.
형사는 그가 범인이라는 냄새를 말았다.

3. <보기> (가)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바탕으로 (나)의 밑줄 친 부분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한글 맞춤법 규정
 제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나) ㉠ 내게는 키가 큰형이 있다.
 ㉡ 나는 연필 한자루를 샀을뿐이다.
 ㉢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너뿐이다.

- ① ㉠의 '큰'과 '형'은 제2항에 따라 띄어 써야겠군.
- ② ㉡의 '자루'는 제43항에 따라 '한'과 띄어 써야겠군.
- ③ ㉢의 '뿐'은 제42항에 따라 ㉠의 '뿐'과 달리 띄어 써야겠군.
- ④ ㉢의 '이해해'와 '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47항에 따라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겠군.
- ⑤ ㉡과 ㉢의 '이다'는 제2항에 따라 '뿐'과 띄어 써야겠군.

4. 다음은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위한 학습 자료이다.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제는 일을 끝마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 ㉠
-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말했다. ㉡
- 나는 학급 회장으로써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
- 나는 성실한 그의 동생을 어제 만났다. ㉣
- 이번 주 금요일에 학급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 ① ㉠: '문제'가 주어와 서술어에 중복되어 나타나므로, '걸린다는 점이 문제이다'를 '걸린다는 점이다'로 고친다.
- ② ㉡: '소개시켜'는 불필요하게 사동 표현이 사용된 것이므로 '소개해'로 고친다.
- ③ ㉢: '으로써'는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므로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로 고친다.
- ④ ㉣: '성실한'의 수식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수식 대상이 '동생'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수식 대상이 '그'일 경우에는 '성실한, 그의 동생'으로 고친다.
- ⑤ ㉤: '회의를 갖다'는 번역체 표현이므로 '가질'을 '할'로 고친다.

5. <보기>는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이어진 문장:** 둘 이상의 홑문장이 대등하거나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ㄱ. 동생은 과일은 좋아하지만, 야채는 싫어한다.
동생은 야채는 싫어하지만, 과일은 좋아한다.
(동생은 과일을 좋아하다. / 동생은 야채를 싫어하다.)
 - ㄴ. 철수가 오면 그들은 출발할 것이다.
그들이 출발하면 철수가 올 것이다.
(철수가 오다. / 그들이 출발하다.)
- **안은 문장:** 홑문장을 전체 문장의 한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
 - ㄷ. 언니는 **그** 아이가 학생임을 알았다.
(언니는 그것을 알다. / 그 아이가 학생이다.)
 - ㄹ. **책을 읽던**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왔다.
(영수가 책을 읽다. / 영수가 수지에게 다가오다.)

* **■** 표시: 안긴 문장임.

- ①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두 문장이 '대조'나 '조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되기도 하는군.
- ② ㄱ과 ㄴ으로 볼 때,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군.
- ③ ㄱ과 ㄹ로 볼 때, 이어진 문장과 안은 문장 모두 중복된 내용을 생략할 수 있군.
- ④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은 안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거나 명사를 꾸미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군.
- ⑤ ㄷ과 ㄹ로 볼 때, 안긴 문장과 안은 문장의 주어는 같을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군.

6. 다음은 표준 발음법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일부이다.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표준 발음법 】

제2장 제5항 'ㅈ ㅊ ㅋ ㆁ'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2. '예, 레' 이외의 'ㄱ'은 [k]로도 발음한다.
다만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n]로 발음한다.
다만4.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ㅇ'은 [ŋ]로, 조사 '의'는 [i]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제1장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제1항 모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2. 이중모음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auto;"> <tr><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ㅣ</td><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ㅘ</td></tr> <tr><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td><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e</td></tr> </table>	ㅣ	ㅘ	i	e	<table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auto;"> <tr><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ㅙ</td><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ㅚ</td></tr> <tr><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ye</td><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ui</td></tr> </table>	ㅙ	ㅚ	ye	ui
ㅣ	ㅘ								
i	e								
ㅙ	ㅚ								
ye	ui								

【붙임1】 'ㄴ'은 'l'로 소리 나더라도 ul로 적는다.

- ① '승례문'에서 '례'의 'ㄱ'은 [k]로 발음해야 하므로 'e'로 표기해야 한다.
- ② '도예촌'에서 '예'의 'ㄱ'은 [k]로도 발음할 수 있으므로 'e'로 표기할 수 있다.
- ③ '퇴계원'에서 '계'는 '예, 레' 이외의 'ㄱ'이어서, [k]로 발음해야 하므로 'e'로 표기해야 한다.
- ④ '충의사'에서 '의'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ㅇ'이어서, [ŋ]로 발음되나 'ui'로 표기해야 한다.
- ⑤ '광희문'에서 '희'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어서, [i]로 발음되므로 'i'로 표기해야 한다.

7.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에 대한 탐구 학습지이다. 과제를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학습지

과제: 다음 [탐구 자료]를 [과제 수행표]에 맞게 고쳐 쓰시오.

[탐구 자료] 틀리기 쉬운 문장

㉠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뻐다.
 ㉡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 버스가 왼쪽으로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과제 수행표]

자료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올바르지 않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여간 기쁘지 않았다. ①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됨.	나는 주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는 수영을 한다. ②
㉢	불필요하게 의미가 중복됨.	버스가 좌회전한 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 ③
㉣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함.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시키고 있습니다. ④
㉤	이중 피동을 사용함.	그 문제는 어려워서 풀리지 않았다. ⑤

8. <보기>는 단어의 의미 관계에 관한 수업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유의 관계에 있는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의 쓰임 비교
(두 단어가 결합 가능하면 ○, 그렇지 않으면 ×)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	
돼지를	○	○	○ ㉠
감나무를	○	○	× ㉡
인내심을	○	○	× ㉢
수업을	○	×	× ㉣
첨단산업을	×	○	× ㉤

- ① ㉠의 경우 ‘기르다’, ‘키우다’, ‘먹이다’는 모두 ‘사육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 ② ㉡의 경우 ‘기르다’와 ‘키우다’는 ‘재배하다’를 대신해 쓸 수 있다.
- ③ ㉢와 ㉤를 보면 ‘키우다’는 ‘기르다’, ‘먹이다’와 달리 추상적인 의미를 지닌 말과 결합하여 쓸 수 있다.
- ④ ㉣의 경우 ‘기르다’는 ‘깎다’와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 ~ ㉤를 보면 ‘기르다’는 ‘먹이다’에 비해 ‘키우다’와 더 많은 상황에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9. <보기>를 바탕으로 ‘주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지난 토요일에 ㉠ 사촌 동생이 왔다. 뭘 할까 고민하다 ㉡ 사촌 동생에게 미술관에 가자고 했다. ㉢ 지하철이 있었지만, 한 정거장이라 걸어가기로 했다.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하시며 ㉣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셨다. 걷다 생각해 보니, ㉤ 우리가 함께 노는 것도 오랜만이였다. 다들 바빠서인지 ㉥ 친척도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 ① ㉠, ㉡, ㉤을 보니, 주어는 ‘무엇이 어찌한다 / 어떠하다’에서 ‘무엇이’에 해당하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주격 조사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③ ㉢을 보니, 문맥상 주어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주어 가 생략되기도 하는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자음 뒤에서는 ‘이’, 모음 뒤에서는 ‘가’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군.
- ⑤ ㉥을 보니, 체언뿐 아니라 명사절도 주어가 될 수 있군.

10.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준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진행상과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표현하는 완료상이 있다.

어머니 : 방 정리를 ㉠하고 있구나.
 아들 : 네. 필요 없는 물건은 다 ㉡내놓았어요.
 어머니 : 잘 했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산 책은 어디 있지?
 아들 : 아, 그 책은 이미 다 읽어서 동생에게 ㉣줘 버렸어요.
 어머니 : 그래 잘 했다. 아참, 오늘 네 친구가 오기로 했지.
 아들 : 네. 조금 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할 친구가 오기로 했어요.
 어머니 : 그래. 깨끗한 방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면 되겠구나.

- ① ㉠ : ‘-고 있구나’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 ‘-ㄴ’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 ‘-어 버렸어요’는 동작이 이미 완결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 ‘-ㄹ’은 발화시가 사건시에 앞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1. <보기>의 (가)~(다)를 고친 이유에 따라 짝지은 결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가)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 나는 그에게 곧 가겠다고 말했다.

(나)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환기해야 한다.
→ 실내에서 답답할 때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다)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 그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한 문장 성분 누락	의미 중복	조사의 잘못된 사용
①	(다)	(나)	(가)
②	(다)	(가)	(나)
③	(나)	(가)	(다)
④	(나)	(다)	(가)
⑤	(가)	(나)	(다)

12. ㉠~㉤의 문장을 고쳐 쓴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문장	고쳐 쓴 문장
㉠	이는 미리 예상했던 일이다.	이는 예상했던 일이다.
㉡	나는 어제 친구와 의논했다.	나는 어제 친구와 그 일을 의논했다.
㉢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	나는 파란 하늘을 눈이 시리도록 보았다.
㉣	이 책은 쉽게 읽혀진다.	이 책은 쉽게 읽힌다.
㉤	선생님께서서는 귀여운 따님이 계십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귀여운 따님이 있으십니다.

- ① ㉠ :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중복되어 사용되었다.
- ② ㉡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 ③ ㉢ :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 ④ ㉣ : 이중피동이 사용되었다.
- ⑤ ㉤ : 높임법의 표현이 잘못 사용되었다.

13. 다음은 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

[1]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인 대상, 또는 상태나 상황을 겪거나 일정한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
-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는 대체로 조사 '로'로 바뀔 수 있다.

[2]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또는 연결 어미 '-지'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연결 어미 '-지' 뒤에 오는 '가'는 '를'이나 '르'로 바뀔 수 있으며, 흔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이 ㉡

[1]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 어떤 상태를 보이는 대상이나 일정한 상태나 상황을 겪는 경험주 또는 일정한 동작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의 '이'는 대체로 조사 '으로'로 바뀔 수 있다.

[2]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 있는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보 기>—

- 어느새 연못 속의 ㉠ 올챙이가 ㉡ 개구리가 되었다.
- 아무리 청소를 해도 방이 ㉢ 깨끗하지가 않다.
- 그 넓은 갈대밭이 모두 ㉣ 뽕밭이 되었다.
- 나는 ㉤ 백두산이 제일 보고 싶다.

- ① ㉠의 '가'와 ㉡의 '이'는 '가[1]'과 '이[1]'을 통해 앞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선택된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② ㉡의 '가'는 조사 '로'로 바뀌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1]'□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부정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③ ㉢의 '가'는 '를'로 바뀌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이'는 조사 '으로'로 바뀌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이[1]'□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의 '이'는 '이[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술어로 사용된 용언에 접미사나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키면 사동이나 피동, 높임, 시간 표현, 주체의 심리적 태도 등 다양한 문법 범주를 실현할 수 있다.

- 할머니께서 진지를 ㉠ 드신다.
- 아버지께서 연을 ㉡ 날리시고 있다.
- 그는 운동장을 열심히 ㉢ 뛰었다.
- 나는 지금 영화관에 ㉣ 가겠다.
- 도둑이 경찰에게 ㉤ 쫓기고 있다.

- ① ㉠의 '-시-'와 ㉡의 '-시-'는 각각의 행위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② ㉠의 '-ㄴ-'과 ㉢의 '-었-'은 현재나 과거 등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 ④ ㉤의 '-겠-'은 행위 주체인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⑤ ㉤의 '-기-'는 행위 주체인 '경찰'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15. B를 고려하여 A를 고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틀린 문장	B: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그는 슈퍼맨이라 불리우는 사람이다.	<input type="checkbox"/> 피동 표현이 잘못됨.	<input type="checkbox"/> ㉠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실게요.	<input type="checkbox"/> 화자의 약속,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르게요'를 부적절하게 사용함.	<input type="checkbox"/> ㉡
그는 설렘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설레다'의 명사형이 잘못됨.	<input type="checkbox"/> ㉢
주호는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input type="checkbox"/> 비교하는 대상이 불분명함.	<input type="checkbox"/> ㉣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세요.	<input type="checkbox"/> 높임 표현이 잘못됨.	<input type="checkbox"/> ㉤

- ① ㉠: 그는 슈퍼맨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 ② ㉡: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 ③ ㉢: 그는 설렘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 ④ ㉣: 주호는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
- ⑤ ㉤: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에요.

16. <보기>의 예문을 통해 문장의 의미 관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나는 그를 안다.
 ㄴ. 너는 고민할 필요 있다.
 ㄷ. 방 안에 있다.
 ㄹ. 늑대가 양을 물었다.
 ㅁ. 그는 옳은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선다.

- ① ㄱ: 반의어를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나는 그를 모른다'를 쓴다.
- ② ㄴ: 부정 표현을 사용한 반의 관계 문장으로 '너는 고민할 필요 있지 않다'를 쓴다.
- ③ ㄷ: 반의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만들면, '방 안에 없다' 외에 '방 밖에 있다'도 가능하다.
- ④ ㄹ: 피동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양이 늑대에게 물렸다'가 된다.
- ⑤ ㅁ: 관용적 표현을 통해 유의 관계에 있는 문장을 만들면, '그는 옳은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다'가 된다.

17. <보기 1>은 접미사 '-시키다'와 관련하여 국어사전을 찾아본 결과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시키다'가 바르게 사용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3점]

< 보 기 1 >

국어사전의 정보 1
-시키다 ㉠ (서술성을 가지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국어사전의 정보 2
사동 ㉡ 주체가 제3의 대상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성질.

< 보 기 2 >

ㄱ. 내 힘으로는 군중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ㄴ. 여러분들께 저희 가족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ㄷ. 우리 군대는 적군을 항복시켜 사실상 전쟁을 끝냈다.
 ㄹ. 경수는 몸이 아픈 수희를 병원에 급히 입원시켰다.
 ㅁ. 모든 기계를 가동시켜도 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

- ① ㄱ, ㄴ, ㅁ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18. '높임 표현'과 관련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머니: 진우야, 엄마 좀 도와줄래? (손에 든 짐을 보여 주며) 할머니 ㉠덕에 가져갈 건데 너무 무겁구나.
 진우: ㉡잠시만요. (한 손에 짐을 들고, 다른 팔로 어머니의 팔짱을 끼면서) 사모님, 같이 ㉢가실까요?
 어머니: (웃으며) 애도 참. 어서 가자. ㉣할머니께서 기다리실 거야.
 진우: 할머니 덕까지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 ① ㉠은 '할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 ② ㉡에서는 보조사 '요'를 붙여 대화 상대방을 높인 표현이다.
- ③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 ④ ㉣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 ⑤ ㉤은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19.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우리말 특정 부사어는 서술어와의 호응이 매우 고정적이다. 그래서 부사어와 서술어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된다.

- ①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마라.
- ② 나는 나대로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 ③ 수지는 차마 친구에게 사실을 말하였다.
- ④ 이런 사건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 ⑤ 이 시험에서는 반드시 직접 쓴 글을 제출해야 한다.

20. <보기>를 바탕으로 연결어미 ‘-(으)니까’와 ‘-아서/-어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비가 와서 / *왔어서 길이 젖었다.
 ㄴ. 비가 오니까 / 왔으니까 길이 젖었을 거야.
 ㄷ. 비가 와서 우산을 샀니?
 ㄹ. 비가 오니까 / *와서 제가 우산을 살까요?
 ㅁ. 비가 오니까 / *와서 우산을 가져가라. / 가져가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과 ㄷ을 보니,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할 수 있군.
- ③ ㄷ과 ㄹ을 보니, 의문문 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아서/-어서’를 사용할 수 없군.
- ④ ㄹ과 ㅁ을 보니,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군.

21.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 ~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1

[구개음화]
 교체 현상의 하나로, 받침이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j]’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면 그것이 각각 구개음 [ㅈ], [ㅊ]이 되거나, ‘ㄷ’ 뒤에 형식 형태소 ‘-히-’가 올 때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ㅉ]이 [ㅊ]이 되는 현상.

< 보기 >

2

- 나는 벽에 ㉠ 붙인 게시물을 떼었다.
- 교수는 문제의 원인을 ㉡ 날날이 밝혔다.
- 그녀는 평생 ㉢ 발이랑 일구며 살았다.
- 그의 말소리는 소음에 ㉣ 묻히고 말았다.
- 그는 겨울에도 방에서 ㉤ 흠이불을 덮고 잤다.

- ① ㉠의 ‘붙-’은 접미사의 모음 ‘ㅣ’와 만나므로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의 ‘-이’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날’의 받침 ‘ㅌ’은 [ㅊ]으로 발음되지 않는다.
- ③ ㉢의 ‘이랑’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이므로 ‘발’의 ‘ㅌ’은 [ㅊ]으로 발음된다.
- ④ ㉣의 ‘묻-’은 접미사 ‘-히-’와 만나므로 ‘ㄷ’이 ‘ㅎ’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ㅉ]은 [ㅊ]으로 발음된다.
- ⑤ ㉤의 ‘흠-’과 결합한 ‘이불’은 모음 ‘ㅣ’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이므로 ‘흠-’의 받침 ‘ㅌ’은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22.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음운 변동의 유형으로는 교체, 탈락, 축약, 첨가가 있다. 한 단어가 발음될 때, 이러한 음운 변동 유형들 중 ㉠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꽃밭[곶빤]’은 교체 한 가지만 나타나지만, ‘꽃잎[곶닙]’은 교체와 첨가 두 가지가 나타난다.

- ① 깎다[깎따]
- ② 막일[망닐]
- ③ 색연필[생년필]
- ④ 값하다[가파다]
- ⑤ 설익다[설릭따]

[23~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공통된 성질을 가진 단어들을 모아 갈래 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국어의 품사는 단어의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첫째, 단어는 형태 변화의 여부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인 불변어와, 활용하여 형태가 변하는 말인 가변어로 나뉜다. 둘째, 단어는 문장 속에서 해당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문장에서 주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용언, 다른 말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수식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관계언,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독립언으로 나뉜다. 셋째, 단어는 개별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그것을 가리키는 대명사,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주로 체언을 꾸며 주는 관형사, 주로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부사, 앞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하는 조사, 말하는 이의 놀람이나 느낌, 부름, 응답 따위를 나타내는 감탄사로 나뉜다.

단어는 하나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령 ‘그는 모든 원인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렸다.’의 ‘잘못’은 조사와 결합하는 명사이지만, ‘그는 길을 잘못 들어서 한참 헤맸다.’의 ‘잘못’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이다. ‘잘못’이 ㉠ 명사와 부사로 쓰인 것이다. 또한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의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지만,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만큼’이 ㉡ 명사와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 밖에도 국어에는 부사와 조사로 쓰이는 경우, 수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23. [A]를 바탕으로 <보기>의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아직까지는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 할머니께서 온갖 재료로 만두를 곱게 빚으셨다.
 ㉢ (대화 중) “들어가도 됩니까?” / “네, 어서 오십시오.”

① ㉠에서 ‘아무’는 문장에서 주어의 기능을 하는 체언이다.
 ② ㉡에서 ‘온갖’은 문장에서 다른 말을 수식하는 수식언이다.
 ③ ㉢에서 ‘네’는 말하는 이의 응답을 나타내는 감탄사이다.
 ④ ㉠과 ㉡에서 조사는 각각 3개씩이다.
 ⑤ ㉠과 ㉡에서 가변어는 각각 2개씩이다.

24.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다.
여기에 사과 일곱 개가 있다.
- ② ㉠ [너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가구가 커서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 ③ ㉠ [식구 모두가 여행을 떠났다.
그릇에 담긴 소금을 모두 쏟았다.
- ④ ㉡ [나를 처벌하려면 법대로 해라.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⑤ ㉡ [모두 같이 학교에 갑시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이 생각난다.

25. <보기>의 ㉠~㉤의 밑줄 친 부분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예가 모두 바르게 제시된 것은?

< 보 기 >

국어에는 자음군 단순화, 구개음화, 비음화, 된소리되기, 거센소리되기 등의 음운 변동이 있다.

㉠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움겨서] 밥을 먹었다.
 ㉡ 그녀는 내 말을 굳이[구지] 따지려 들지는 않았다.
 ㉢ 그는 정계에 입문하여[임문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 나는 말을 더듬지[더듬찌] 않고 또박또박 대답했다.
 ㉤ 그는 들직한[듣지칸] 성품으로 주변에 친구가 많았다.

- ① ㉠의 예 : 굽기다, 급하다
- ② ㉡의 예 : 미달이, 뽀대다
- ③ ㉢의 예 : 집문서, 말누이
- ④ ㉣의 예 : 꺼안다, 꿈같이
- ⑤ ㉤의 예 : 굽히다, 한여름

2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국어의 조사 중에는 주로 체언 뒤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와 체언, 부사, 활용 어미 따위에 붙어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가 있다.

① ‘국수란도 먹으렴.’에서의 란도
 ② ‘영어야 철수가 도사지.’에서의 야
 ③ ‘그 과자를 먹어든 보았다.’에서의 든
 ④ ‘일을 빨리만 하면 안 된다.’에서의 만
 ⑤ ‘그는 아이처럼 순진하다.’에서의 처럼

27. 다음은 '음운의 변동'과 관련된 학습지의 일부이다. ㉠과 ㉡에 들어갈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음운의 변동은 어떤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음운의 변동은 그 결과에 따라 교체, 축약, 첨가, 탈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음운의 변동은 한 단어에 2개 이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맨입[맨닙] ————— ㉠

설날[설랄] ————— ㉡

줄은[조은] —————

1. ㉠에는 '맨입'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이 일어난 단어를 자료에서 찾아 쓴다.
2. ㉡에는 '설날'을 발음할 때와 '줄은'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이 함께 일어난 단어를 자료에서 찾아 쓴다.

자료

논일[논닐], 나뭇잎[나문닙], 칼날[칼랄]
 늦여름[느녀름], 달은[다은], 달는[달른]

- | | |
|----------|----------|
| ㉠ | ㉡ |
| ① 논일[논닐] | 늦여름[느녀름] |
| ② 달은[다은] | 달는[달른] |
| ③ 칼날[칼랄] | 나뭇잎[나문닙] |
| ④ 논일[논닐] | 달는[달른] |
| ⑤ 달은[다은] | 칼날[칼랄] |

28. 다음은 접사와 어근의 결합 양상에 대해 수업 중 발표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표 내용]

발표 1: 어근에 접두사가 결합되면 어근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선무당'은 어근 '무당'에 접두사 '선-'이 결합하여 '서툰'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군말', '군살'도 그 예에 속합니다.

발표 2: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되면 어근에 의미가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꼬보'는 어근 '꼬'에 접미사 '-보'가 결합하여 '그것을 즐기거나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의미가 더해진 것입니다.

발표 3: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면 품사가 바뀌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하다'가 붙으면 명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뀝니다.

- ① '발표 1'의 내용 중 '군말', '군살'의 '군-'은 '쓸데없는'의 의미를 어근에 더해 주는군.
- ② '발표 1'과 '발표 2'를 종합해 보면, 접두사와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군.
- ③ '발표 2'의 단어에 '멋쟁이', '장난꾸러기'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군.
- ④ '발표 2'와 '발표 3'을 종합해 보면, '꼬보'는 '-보'에 의해 의미가 더해지고 품사가 바뀌었군.
- ⑤ '발표 3'에는 '숙제하다'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군.

29. 다음 ㄱ~ㄷ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ㄱ. 솔 → [손], 앞 → [입], 동넙 → [동넙]
 ㄴ. 닭 → [닥], 값 → [갑], 여덟 → [여덜]
 ㄷ. 국화 → [구과], 쌀다 → [싸타], 입학 → [이팍]

- ① ㄱ은 음절의 끝에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ㄱ의 예로 '꽃 → [꼐]'를 추가할 수 있다.
- ② ㄴ은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없어지는 현상으로, ㄴ의 예로 '넙 → [넙]'을 추가할 수 있다.
- ③ ㄷ은 두 음운이 만나 하나의 음운이 되는 현상으로, ㄷ의 예로 '놓지 → [노치]'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ㄱ과 ㄷ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는 '첫해 → [처태]'를 들 수 있다.
- ⑤ ㄴ과 ㄷ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는 '핥다 → [할따]'를 들 수 있다.

30.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수관형사는 수사와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아 혼동하기 쉽다. 문장에서 둘 다 활용을 하지 않고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지만, 수관형사는 수사와 달리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와 함께 쓰인다는 차이가 있다.

- 이 일을 마치는 데에 ㉠칠 개월 걸렸다. (수관형사)
- 육에 일을 더하면 칠이다. (수사)

—————<보기 2>—————

- 명호는 바둑을 ㉡다섯 판이나 두었다.
- 윤배가 고향을 떠난 지 ㉢팔 년이 지났다.
- 은주는 시장에서 토마토를 ㉣하나 사 왔다.
- 현수는 달리기 시합에서 ㉤셋째로 들어왔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31.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비음화는 ㉠ 흡받침 또는 쌍받침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자음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 겹받침이 그 중 한 자음만 발음되는 현상을 겪은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 | | |
|------------|--------|
| ㉠ | ㉡ |
| ① 짝는[깡는] | 흡만[흥만] |
| ② 끝물[끈물] | 앞자[안짜] |
| ③ 듣는[든는] | 옳는[음는] |
| ④ 솟내[순내] | 달은[다른] |
| ⑤ 앞마당[암마당] | 값이[갑씨] |

32.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조사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형(은/는) 학교에 가고, 나(*은/는) 집에 갔다.
- 민수(가/는) 운동(을/은) 싫어한다.
- 나는 점심에 국수 먹었는데 너는 무엇을 먹었어?
- 어서요 읽어 보세요.
-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는 비문법적인 표현임.)

- ① 격 조사 자리에 보조사가 올 수도 있군.
 ② 격 조사는 담화 상황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군.
 ③ 앞에 오는 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조사를 선택하기도 하는군.
 ④ 보조사는 체언뿐 아니라 부사 뒤에도 붙을 수 있군.
 ⑤ 보조사는 격 조사와 결합할 때 격 조사 뒤에만 붙을 수 있군.

33. 다음은 ‘축약’에 대한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가) ~ (다)의 사례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변동 중 ‘축약’은 자음 간의 축약과 모음 간의 축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놓고’가 [노코]로 발음되는 ㉠ 거센소리되기는 자음이 축약된 사례이고, ‘보아’가 ‘뵤’로 음절이 줄어드는 경우는 모음이 축약된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모음의 축약을 용언으로 한정할 경우, ㉡ 어간에서만의 축약, 어미에서만의 축약, ㉢ 어간과 어미의 축약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으셨다’는 선어말 어미인 ‘-시-’와 ‘-었-’이 ‘-셨-’으로 축약되었으므로 어미에서만 축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기>—————
 고등학교 ㉠ 입학 후 중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우리들은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 정말 ㉡ 좋다며 반갑게 인사를 ㉢ 나눴다. 눈에 ㉣ 뜨게 모습이 변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들 마음만은 여전히 ㉤ 보였다. 우리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눈 뒤, 다음을 기억하며 헤어졌다.

- | | | | |
|---|------|------|------|
| | (가) | (나) | (다) |
| ① | b | a, d | c, e |
| ② | c | a, b | d, e |
| ③ | a, b | d | c, e |
| ④ | a, b | c, e | d |
| ⑤ | a, e | b, d | c |

34. <보기>의 밑줄 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동음이의(同音異義) 관계에 있는 용언들은, 그 기본형은 같지만 다양한 어미를 결합시켜 활용을 해 보면 하나는 규칙, 다른 하나는 불규칙 활용을 함으로써 두 용언의 활용 형태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통해 동음이의 관계의 두 용언이 각각 서로 다른 단어임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 ① 친구가 병이 났다.
동생이 형보다 인물이 났다.
- ② 벽에 바른 벽지가 올다.
시험에 진 어린이가 올다.
- ③ 소나무가 마당 쪽으로 굽다.
어머니께서 빵을 굽다.
- ④ 친구에게 약속 시간을 이르다.
약속 장소에 이르다.
- ⑤ 장작이 벽난로에서 타다.
학교에 가려고 버스를 타다.

35. 다음 ㄱ~ㄹ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ㄱ. 꽃[꼇], 앞[압]
ㄴ. 맨입[맨닙], 담요[담 뇨]
ㄷ. 안다[안 따], 탁구[탁꾸]
ㄹ. 날다[나 타], 오+아서 →와서[와서]

- ① ㄱ과 ㄴ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홀이불 → [흔니불]'을 들 수 있다.
- ② ㄱ과 ㄷ은 모두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다.
- ③ ㄱ과 ㄷ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앞다 → [업따]'를 들 수 있다.
- ④ ㄹ의 [나 타]는 자음 축약에, [와서]는 모음 축약에 해당된다.
- ⑤ ㄹ의 [와서]와 같은 예로 '집에 가아 → 집에 가[가]'를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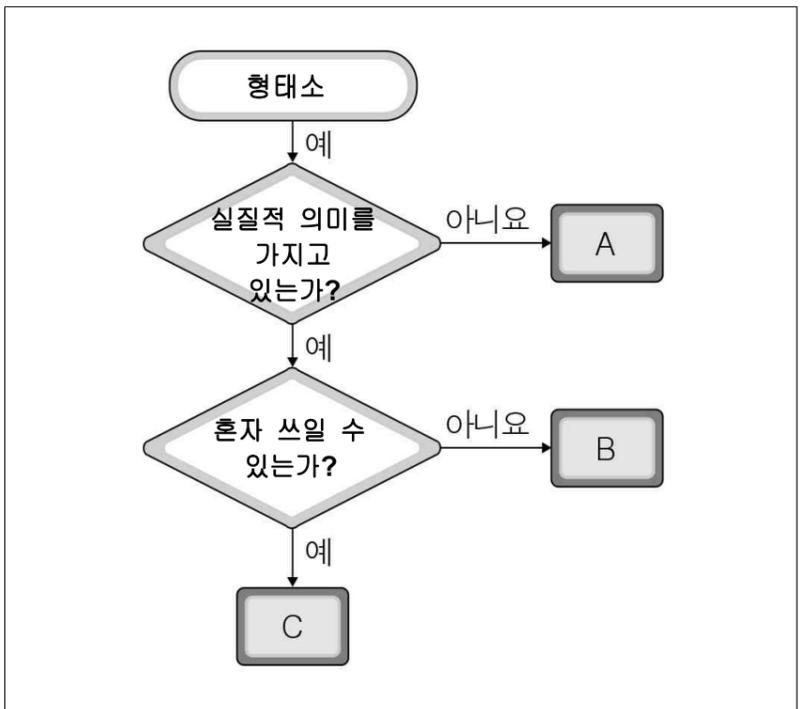
36. <보기>에서 설명한 음운 현상과 관계가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보 기 >

동화란 한 음운이 앞이나 뒤에 있는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 음운과 닮아 가는 현상이다. 대표적인 동화 현상으로는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이 있다.

- ① '붙이다'는 왜 [부티다]가 아니라 [부치다]로 소리 날까?
- ② '집안일'은 왜 [지바닐]이 아니라 [지반닐]로 소리 날까?
- ③ '권력'은 왜 [권력]이 아니라 [귄력]으로 소리 날까?
- ④ '먹는다'는 왜 [멍는다]로 소리 날까?
- ⑤ '굳이'는 왜 [구지]로 소리 날까?

37. 다음의 탐구 과정에 따라 <보기>의 ㉠~㉢을 분류하고자 한다. A~C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북두칠성은 ㉠ 어느 계절에나 북쪽 밤하늘을 보면 쉽게 찾을 수 ㉡ 있다. 북두칠성을 흔히 국자㉢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국자라면 국을 쓸 때 국이 흐를 마지막 두 별을 잇㉣는 직선상에 있는 별 중 가장 밝고, 두 별의 간격의 다섯 배쯤에 있는 별을 발견할 것이다. 그 ㉢ 자리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밤 하늘의 북극성이다.

- | | A | B | C |
|---|------|------|------|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38.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ㅁ’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ㅁ’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난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ㅁ’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뫼문[뫼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줍니다.

< 보 기 >

ㄱ. 그는 날렵한 ㉠ 콧날[곤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ㄴ. 나는 아끼던 ㉡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ㄷ. 그 사람은 회사의 ㉢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 물약[물락]을 지어갔다.
 ㅁ. 그녀는 ㉤ 잇몸[인몸]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 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② ㉡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 ③ ㉢은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ㅁ’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④ ㉣은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낙]’으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⑤ ㉤은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39. <보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것은?

< 보 기 >

용언의 활용에서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불규칙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 어간만 바뀌는 경우

< 예시 >

어간	+ 어미의 기본형태	
걸-	+ -고	→ 걸고
	+ -아/어	→ <u>걸어</u>
	+ -아라/어라	→ <u>걸어라</u>
		□

· 어미만 바뀌는 경우

< 예시 >

어간	+ 어미의 기본형태	
이르(至)-	+ -고	→ 이르고
	+ -아/어	→ <u>이르러</u>
	+ -아서/어서	→ <u>이르러서</u>
		□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 ㉠

- ① 사람들을 빨리 불러 오너라.
- ② 하늘이 파래서 기분이 좋다.
- ③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 내지 마라.
- ④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 보라.
- ⑤ 공부를 열심히 하여 좋은 결과를 얻자.

40. <보기>를 바탕으로 연결어미 ‘-(으)니까’와 ‘-아서/-어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비가 와서 / *왔어서 길이 젖었다.
 ㄴ. 비가 오니까 / 왔으니까 길이 젖었을 거야.
 ㄷ. 비가 와서 우산을 샀니?
 ㄹ. 비가 오니까 / *와서 제가 우산을 살까요?
 ㅁ. 비가 오니까 / *와서 우산을 가져가라. / 가져가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과 ㄷ을 보니,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할 수 있군.
- ③ ㄷ과 ㄹ을 보니, 의문문 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아서/-어서’를 사용할 수 없군.
- ④ ㄹ과 ㅁ을 보니,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군.